

『金匱要略心典·奔豚氣病脈證治第八』에 대한 번역연구

尙志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¹

李仙蘭¹·李容範¹ *

Translational Study for 『Treatise on Bundon Disease in Chapter 8 of the Essence of the Synopsis of the Golden Chamber (金匱要略心典·奔豚氣病脈證治第八)』

Li Xian-lan¹ · Lee Yong-bum¹ *

¹Dept.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and Medical Histo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Sangji University

After translating the contents of 『Treatise on Bundon Disease in Chapter 8 of the Essence of the Synopsis of the Golden Chamber(金匱要略心典·奔豚氣病脈證治第八)』 and it was compared with the contents of 『The Lecture of Synopsis of Prescriptions of the Golden Chamber(金匱要略講義)』 and speculated to review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mments of Ui(尤怡) and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made.

As the causes of bundon(奔豚) disease, which means gas rushing like a running piggy from the lower abdomen to the throat, they could be categorized into the cases belongs to miscellaneous diseases(雜病) and into the cases of suffering from cold diseases(傷寒). If it was diagnosed as miscellaneous disease, terror and fear(驚恐) could be regarded as its cause and if it was diagnosed as cold disease, insufficiency of heart Gi(心氣) due to the excessive sweating and the invasion of exterior coldness could be regarded as its cause.

As the pathogenesis of this disease, the pathogenic factors of liver and kidney could be found. Since the liver and Soyang meridian(少陽經) are subjected to the exterior and interior relation in case of the pathogenic factor of liver, alternate attacks of chills and fever(寒熱往來) could be characteristic for the disease. If this disease was caused by the pathogenic factor of kidney, there are two cases. One is the palpitation under the umbilicus(欲作奔豚: 臍下動悸) developed by the lack of heart Gi(心氣) and the other is gas rushing like a running piggy from the lower abdomen to the throat which could be developed by the exterior cold disease which invade into the interior and reach into the kidney when the heart Gi(心氣) was insufficient.

* 교신저자 : 李容範,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660번지,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033-730-0668,

E-mail: A95005@Gmail.com
접수일(2008년 4월 25일), 수정일(2008년 5월 9일), 게재확
정일(2008년 5월 16일)

In its treatment, bundon disease caused by the pathogenic factor of liver could be treated with Bundontang(奔豚湯), and the understanding of Ui(尤怡) on Pinellia ternata Breitenbach(半夏) having the effect of perspiration in the prescription is quite unique concept. In case of bundon disease caused by the pathogenic factor of kidney, treatment is focused to treat exterior coldness by applying moxibustion(灸) and Gyejigagyetang(桂枝加桂湯), and in case of the palpitation under the umbilicus(欲作奔豚: 臍下動悸), its pathogenic factor of kidney is controlled with Cinnamomum louerii Nees(桂枝), Polia cocos Walf(茯苓) and the spleen Gi(脾氣) is cared by using Glycyrrhiza uralensis Fischer et. De Candolle(甘草) and Zizyphus jujuba Mill(大棗). Especially, Ui(尤怡) emphasized Cinnamomum louerii Nees(桂枝) as the medication to treat the pathogenic factor of kidney.

Key Words : bundon(奔豚), the palpitation under the umbilicus(欲作奔豚: 臍下動悸), terror and fear(驚恐), pathogenic factor of liver(肝邪), pathogenic factor of kidney(腎邪).

I. 서론

清代 尤在涇이 저술한 『金匱要略心典』은 『金匱要略』의 중요 주석서이다. 그 중 제 8편인 「奔豚氣病脈證治」는 奔豚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다. 奔豚에 대하여는 『傷寒論』에도 언급되고 있는데, 『金匱要略』에서는 『傷寒論』의 내용을 근간으로 하면서, 雜病에 속하는 奔豚과 肝邪에 의하여 발생하는 奔豚의 내용을 추가하여, 奔豚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를 제공하고 있다.

尤在涇은 『金匱要略』 원문에 주석을 달면서, 奔豚의 원인과 病機, 그리고 치료방법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자세히 피력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金匱要略心典·奔豚氣病脈證治第八』에 대한 원문과 尤在涇의 주석을 번역하고, 최근 많이 유통되고 있는 『金匱要略講義』의 내용과 비교 고찰함으로써, 尤在涇 주석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翻譯에 사용된 저본은 中國中醫藥出版社에서 출판된 『尤在涇醫學全書』에 수록된 『金匱要略心典』이다. 다만 원문을 기록할 때 原書에 簡體字로 되어

있는 것을 繁體字로 바꾸었다.

2) 大星文化社에서 출판한 趙開美本 『仲景全書』를 校勘本으로 하여 校勘을 달았고, 저본의 각주에 따라 校勘과 注解에 넣었으며, 注解에는 注釋書 중에서 校注本에 속하는 清代 吳謙의 『醫宗金鑑』의 내용을 많이 참고하였다.

3) 내용을 비교할 때에는 『金匱要略講義』를 많이 참고하였다.

4) 각 조문의 뒤에 [按]을 달아, 원문과 주석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III. 본론

[原文]

師曰: 病有奔豚, 有吐膿, 有驚怖, 有火邪, 此四部病, 皆從驚發得之.

[注釋]

『醫宗金鑑』에서는 이 條文에 단지 奔豚에 대한 기록만 있고 吐膿, 驚怖, 火邪에 대한 내용이 缺如되었으니 모두 脫簡되었다고 하였다.²⁾

1) 孫中堂 主編. 尤在涇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p.91-174.

2) 吳謙 等撰. 醫宗金鑑訂正仲景全書金匱要略注. 北京. 人民

〔解釋〕

스승께서 말씀하시기를 “병에 奔豚, 吐膿, 驚怖, 火邪가 있는데, 이 네 가지 병은 모두 놀람에서 기인하여 얻는다.”고 하였다.

〔注〕

奔豚具如下文. 吐膿有咳與嘔之別, 其從驚得之旨未詳. 驚怖即驚恐, 蓋病從驚得, 而驚氣即爲病氣也. 火邪見後驚悸部及傷寒太陽篇, 云太陽病, 以火熏之, 不得汗, 其人必躁, 到經不解, 必固血, 名爲火邪, 然未嘗云以驚發也. 驚悸篇云: 火邪者, 桂枝去芍藥加蜀漆牡蠣龍骨救逆湯主之, 此亦是因火邪而發驚, 非因驚而發火邪也. 卽後奔豚證治三條, 亦不必定從驚恐而得, 蓋是證有雜病傷寒之異. 從驚恐得者, 雜病也, 從發汗及燒針被寒者, 傷寒也. 其吐膿, 火邪二病, 仲景必別有謂, 姑闕之以俟知者. 或云, 東方肝火, 其病發驚駭, 四部病皆以肝爲主. 奔豚, 驚怖皆肝自病, 奔豚因驚而發病, 驚怖即驚以爲病也. 吐膿者, 肝移熱于胃, 胃受熱而生癰膿也. 火邪者, 木中有火, 因驚而發, 發則不特自燔, 且及他臟也, 亦通.

〔解釋〕

奔豚에 대하여는 아래문장에 갖추어져 있다.

吐膿은 기침과 구토의 구별이 있는데, 驚으로부터 기인한다는 의미가 자세하지 않다.

驚怖는 즉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인데, 아마 병이 驚으로부터 생겨서 驚氣가 바로 病邪가 된다는 의미인 듯하다.

火邪에 대하여서는 위의 驚悸 부분과 傷寒 太陽篇에 나오는데, “太陽病에서 火로써 熏蒸하여도 땀이 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煩躁하게 될 것이며, 邪氣가 一巡하여 다시 太陽經에 이르더라도 병이 풀리지 않으면, 반드시 大便에 피가 섞여 나올 것인데, 이것을 일러 火邪라고 한다.”³⁾고 하였으나, 驚에 기인하여 발생한다는 것에 대하여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金匱要略』驚悸篇에서는 “火邪로 인한 병에는 桂枝去芍藥加蜀漆龍骨救逆湯을 사용한다.”⁴⁾고 하였

는데, 이것 역시 火邪로 인하여 驚證이 생긴 것으로, 驚으로 인하여 火邪가 생기게 된 것은 아니다.

바로 뒤에 나오는 奔豚證을 치료하는 3가지 조문에서도 또한 반드시 驚에 기인하여 병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한정할 필요는 없는데, 아마 이 病證에는 雜病과 傷寒의 차이점이 있는 듯하다. 驚恐으로 인하여 奔豚이 생기게 된 것은 雜病이고, 發汗하여 奔豚이 발생하거나 燒針법으로 치료한 다음 寒邪를 당하여 奔豚이 발생한 것은 傷寒이다.

吐膿과 火邪의 2가지 병에 대하여는 張仲景 선생께서 반드시 따로 논하여 말씀하신 내용이 있을 것인데, 여기에서는 잠시 생략하여 내용을 아는 사람을 기다린다.

혹자가 말하기를, “『內經』에 ‘방위로는 東方과 오장 중의 肝이 木에 속하는데, 木이 병들면 驚駭의 증상이 나타난다.’⁵⁾고 하였으니, 4가지 병은 모두 肝이 위주가 된다. 奔豚과 驚怖는 모두 肝 자체에 병이 생긴 것인데, 奔豚은 驚으로 인하여 發病한 것이고, 驚怖는 바로 驚이 병이 된 것이다. 吐膿症狀은 肝이 熱을 胃로 轉移하여 胃가 열을 받아 癰膿을 발생한 것이다. 火邪는 木의 가운데 火가 있는 것으로 驚으로부터 발작하는데 발작하면 스스로 타오를 뿐만 아니라 다른 臟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 하였는데, 이렇게 설명하여도 역시 통한다.

〔按〕

원문에 있는 4가지 병 중에서 火邪가 驚으로부터 발생한다는 언급에 대하여, 尤在涇은 『傷寒論』에 근거하여 火邪로 인하여 驚證이 생기는 것이지 驚으로 인하여 火邪가 발생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부정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奔豚에 있어서는 그 원인이 『金匱要略』 원문에서 말하는 驚으로만 한정할 수 없고, 傷寒에서 發汗이 과도하였든지 혹은 燒針 치료 후 寒邪가 鍼孔으로 침입하여 奔豚이 발생하며, 다만 雜病의 경우에는 驚이 원인이 되어 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여, 원문을

衛生出版社. 2000. p.520.

3) 김진호. 註解傷寒論에 대한 연구. 상지대학교 대학원. 2007. p.290. “太陽病, 以火熏之, 不得汗, 其人必躁, 到經不解, 必清血, 名爲火邪.”

4) 이선란. 金匱要略心典에 대한 연구. 상지대학교 대학원.

2005. p.327. “火邪者, 桂枝去芍藥加蜀漆牡蠣龍骨救逆湯主之.”

5) 郭霽春 主編. 黃帝內經素問校注 素問生氣通天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p.64. “東方青色, 入通於肝, 開竅於目, 藏精於肝, 其病發驚駭.”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內經』에 肝의 병증이 驚駭로 되어 있는 것에 근거하여, 원문의 4가지 병을 肝과 관련지우는 주장에 대하여는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原文]

師曰： 奔豚病從少腹上衝咽喉^①，發作欲死，復還止，皆從驚恐得之。

[校勘]

① 奔豚病從少腹上衝咽喉： 趙開美本에는 少腹뒤에 ‘起’字가 더 있고, ‘喉’字는 없다.⁶⁾

[解釋]

스승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奔豚病은 少腹에서 일어나 위로 咽喉에 치밀어 올라가 발작이 일어날 때에는 마치 죽을 것처럼 고통을 느끼다가, 발작이 지나가면 보통의 사람과 똑같이 되는데, 모두 놀라움과 두려움으로부터 일어난다.”

[注]

前云驚發，此兼言恐者，腎傷于恐，而奔豚爲腎病也。豚，水畜也；腎，水臟也。腎氣內動，上衝咽喉，如豕之突，故名奔豚。亦有從肝病得者，以腎肝同處下焦，而其氣并善上逆也。

[解釋]

앞에서는 놀라움으로 인하여 발작한다고 하고 이곳에서는 병인으로 두려움을 겸하여 말씀하신 것은 腎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손상되는데, 奔豚은 腎臟에 병이 생긴 것이기 때문이다. 豚은 水에 해당하는 짐승이며, 腎은 水의 臟器이다. 腎氣가 속에서 발동하게 되면 가슴과 咽喉로 치밀어 올라가게 되는 것이 마치 돼지가 衝突하는 것과 같아 奔豚이라고 이름 지었다. 또한 肝의 병으로 인하여 생기는 것도 있는데 腎과 肝이 함께 下焦에 거처하고 있고 그 氣가 함께 어우러져 잘 上逆하기 때문이다.

[按]

이 조문에서는 奔豚의 원인이 驚과 恐이라고 하였는데, 尤在涇은 앞 조문의 주에서 驚이 肝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을 인정하고 있고, 이 조문의 주에서는 恐이 腎과 관련이 있다고 하여, 잡병에서 奔豚의 원

인이 驚恐이고, 관련 臟腑는 肝腎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臟腑의 해부학적 위치상 腎臟과 肝臟이 모두 下焦에 居處하고 있기 때문에 氣가 함께 잘 上逆하는 성질이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原文]

奔豚，氣上衝胸，腹痛，往來寒熱，奔豚湯主之。

[解釋]

奔豚病으로 기가 위로 가슴에까지 치밀어 오르고 腹部가 아프며 惡寒과 發熱이 서로 교차적으로 나타날 때는 奔豚湯으로 치료한다.

[注]

此奔豚氣之發于肝邪者，往來寒熱，肝臟有邪而氣通于少陽也，肝欲散，以薑，夏，生葛散之，肝苦急，以甘草緩之，芎，歸，芍藥理其血，黃芩，李根下其氣，桂，苓爲奔豚主藥，而不用者，病不由腎發也。

[解釋]

이것은 奔豚의 氣가 肝의 邪氣로 인하여 발작한 것인데 往來寒熱하는 것은 肝臟에 邪氣가 있고 氣가 少陽經으로 통하기 때문이다. 肝은 발산하려 하므로, 生薑 半夏 生葛根으로 發散시키고, 『內經』에서 ‘肝은 急으로 괴롭다.’⁷⁾ 하였고으므로, 甘草로 緩和시키고, 川芎 當歸 芍藥은 그 血을 다스리며, 黃芩 李根白皮는 그 氣를 내려 보낸다. 桂枝 茯苓은 奔豚을 치료하는 주요한 약이나 이곳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은 病이 腎에서 發生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按]

尤在涇은 肝의 邪氣로 인하여 발생하는 奔豚의 특징은 寒熱往來이고, 그 병기는 肝의 邪氣가 少陽經에 통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傷寒에서 寒熱往來는 少陽病의 대표적인 증상이다.

치료에 있어서, 尤在涇은 ‘肝欲散’하므로, 생강 반하 생갈근으로 발산하고, ‘肝苦急’하므로, 감초로 완화시키며, 당귀 천궁 작약으로 血을 다스리고, 황금 이근백피로 上逆하는 氣를 내린다고 하였는데, 이 중에서 반하를 降逆작용이 아닌 발산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는 점은 특이하다. 이근백피는 『名醫別錄』에 의

7) 郭霽春 主編. 黃帝內經素問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p.315. “肝苦急，急食甘以緩之.”

6) 張仲景 編著. 仲景全書. 서울. 대성문화사. 1984. p.379.

하면 “大寒, 主消渴, 止心煩逆奔氣.”⁸⁾라고 하여, 奔豚을 치료하는 약으로 기재되어 있다.

〔原文〕

奔豚湯

甘草 芎藭 當歸 黃芩 芍藥各二兩, 半夏 生薑各四兩, 生葛五兩, 甘李根白皮一升

上九味, 以水二斗, 煮取五升, 溫服一升, 日三夜一服.

〔解釋〕

분돈탕

감초 천궁 당귀 황금 작약 각 2냥, 반하 생강 각 4냥, 생갈근 5냥, 감이근백피 1되.

위의 9가지 약을 물 2말에 넣고 달여 5되로 만들어 1되씩 낮에 세 번 밤에 한번 따뜻하게 해서 먹인다.

〔原文〕

發汗後^①, 燒針令其汗, 針處被寒, 核起而赤者, 必發奔豚, 氣從少腹上至心. 灸其核上各一壯, 與桂枝加桂湯主之.

〔校勘〕

① 發汗後: 『註解傷寒論』 권3 제6 「辨太陽病脈證并治中」에는 ‘發汗後’ 3글자가 없다.⁹⁾ 『醫宗金鑑』에서는 이것이 잘못 붙여진 내용이라고 하여 『傷寒論』에 의하여 삭제해야 한다고 하였다.¹⁰⁾ 그러나 『金匱要略方論校注語譯』에서는 ‘發汗後’는 순서가 바뀌었다고 보고 ‘燒針令其汗’뒤에 놓으면 뜻이 비교적 부드럽다고 하였다.¹¹⁾ 尤在涇은 아래의 주석에서 發汗한 후에 재차 땀을 낸 것으로 보고 있는데, 『金匱要略講義』에서도 이러한 주석을 따르고 있다.¹²⁾

8) 陶弘景 集. 尚志鈞 輯校. 名醫別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308.

9) 김진호. 註解傷寒論에 대한 연구. 상지대학교 대학원. 2007. p.293.

10) 吳謙 等撰. 醫宗金鑑訂正仲景全書金匱要略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520.

11) 郭靄春, 王玉興 主編. 金匱要略方論校注語譯.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97.

12)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講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p.92.

〔解釋〕

발한을 시킨 다음 燒針으로 재차 땀을 내게 하였는데, 땀이 난 후에 刺針한 부위로 寒邪가 침입하여 局部에 씨가 맺힌 듯이 빨갱게 부어오르면, 반드시 奔豚病을 유발하여 氣가 少腹부위로부터 가슴 쪽으로 치밀어 오르게 된다. 씨처럼 맺힌 부위에 각 한 장씩 뜸을 떠주고 桂枝加桂湯을 사용한다.

〔注〕

此腎氣乘外寒而動, 發爲奔豚者. 發汗後, 燒針復汗, 陽氣重傷, 于是外寒從針孔而入通於腎, 腎氣乘外寒而上衝于心, 故須灸其核上, 以杜再入之邪, 而以桂枝湯外解寒邪, 加桂內泄腎氣也.

〔解釋〕

이것은 腎氣가 외부에서 들어온 寒邪를 올라타고 發動되어 奔豚病이 발생한 것이다. 發汗시킨 후에 燒針으로 재차 땀을 내어 陽氣가 거둠 손상되었는데, 이때에 바깥의 寒邪가 침구멍으로부터 들어와 腎에 까지 이르러, 腎氣가 외부의 寒邪를 올라타고 心에까지 치밀어 오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그 씨처럼 부어오른 자리에 뜸을 떠서 다시 들어오는 邪氣를 막고, 桂枝湯으로 寒邪를 밖에서 풀어주며, 계지를 더 보태어 내부에서 腎氣를泄한다(腎氣를 밑으로 내린다).

〔按〕

이 조문에서는 陽氣가 매우 손상된 상태에서 외부의 寒邪가 침입하여 奔豚이 생긴 것을 설명하고 있다. 尤在涇은 病機에서 외부 寒邪가 入裏하여 腎에 이르러 腎氣를 발동시켜 心에까지 치밀어 오르게 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尤在涇은 치료에 있어서, 灸法을 사용하여 외부 鍼孔으로 들어오는 寒邪를 막고, 계지탕으로 외부 寒邪를 풀며, ‘加桂’하여 ‘내부에서 腎氣를泄한다.’고 하여, 3가지 방면에서 치료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加桂’의 의미에 대하여 『金匱要略講義』에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학설을 설명하고 있다. “한 학설은 계지를 가하여 心陽을 북돋워 逆氣를 내리고 위로 치솟는 것을 가라앉히는 것이고, 다른 한 학설은 육계를 가하여 腎을 덥혀 納氣하게 하여 寒水가 下焦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다.”¹³⁾

[原文]

桂枝加桂湯方

桂枝五兩, 芍藥 生薑 各三兩 甘草二兩 炙, 大棗十二枚

上五味, 以水七升, 微火煮取三升, 去滓, 服一升.

[解釋]

계지가계탕방

계지 5냥, 작약 생강 각 3냥씩, 감초(炙한다) 2냥, 대추 12개.

위의 5가지 약을 물 7되에 넣고 약한 불로 달여 3되가 되면 찌꺼기를 버리고 1되를 服用한다.

[原文]

發汗後, 臍下悸者, 欲作奔豚, 茯苓桂枝甘草大棗湯主之.

[解釋]

發汗시킨 다음 배꼽아래에悸가 생긴 것은 분돈이 생기려는 것으로, 茯苓桂枝甘草大棗湯으로 치료한다.

[注]

此發汗後心氣不足, 而後腎氣乘之, 發爲奔豚者, 臍下先悸, 此其兆也. 桂枝能伐腎邪, 茯苓能泄水氣. 然欲治其水, 必益其土, 故又以甘草, 大棗補其脾氣. 甘瀾水者, 揚之令輕, 使不益腎邪也.

[解釋]

이것은 發汗시킨 후에 心氣가 부족하고 이후에 腎氣가 心氣를 올라타서 奔豚이 생기려는 것인데 배꼽아래에 먼저 悸症이 나타나는 것이 그 조짐이다. 桂枝는 腎의 邪氣를 칠 수 있고, 茯苓은 水氣를 뺄 수 있다. 그러나 水를 다스리려면 반드시 土를 補益해 주어야 하므로 또한 甘초 大棗로서 脾의 氣를 補하여 준다. 甘瀾水는 물을 휘저어 가볍게 한 것으로, 腎의 邪氣를 도와주지 않게 한다.

[按]

이 조문은 ‘欲作奔豚’證을 설명한 것으로, 發汗過多 후에 心氣가 약해져서 腎氣가 心氣를 올라타려는 것은 奔豚의 病機와 같은데, 다른 점은 發汗過多 후

외부 寒邪의 침입이 없다는 점이다. 奔豚은 寒邪의 入裏로 腎氣가 더 강하게 發動되어 少腹에서 心에까지 치밀어 오르며, ‘欲作奔豚’에서는 寒邪의 침입이 없고 發汗過多에 의하여 心氣가 不足해져서 臍下에 단 動悸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心氣가 부족해져서, 腎氣가 올라탄다는 것은 水克火의 病機로 해석할 수 있다.

尤在涇은 奔豚湯 조문에서 분돈탕에 계지와 복령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腎의 병이 아니기 때문이라 하였고, 桂枝加桂湯 조문에서는 계지를 가하여 腎의 邪氣를 내부에서 泄한다고 하였으며, 이 조문에서는 또 계지가 腎의 邪氣를 伐한다고 하여, 계지를 腎氣가 上逆하는 것을 치료하는 주된 약제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계지와 복령이 腎의 邪氣를 다스리는 약이라면, 감초와 대조는 脾의 氣를 補하는 약으로 보아, 그 기전을 水를 다스리기 위하여 土를 강화하는 土克水의 의미로 설명하고 있다. 『金匱要略講義』에서도 ‘培土制水’라고 하여 같은 관점을 취하고 있다.

『金匱要略講義』에서는 또한 이 조문에 대하여, “平素 下焦에 水飲이 停滯되어 있어 氣化가 잘 되지 않다가, 發汗까지 과도하게 시켜 心陽이 손상 받아 水飲이 내부에서 움직여 배꼽아래에 空당콩당 動悸가 발생하며, 장차 奔豚病이 나타날 추세를 보이고 있다”¹⁴⁾고 보고 있으며, 또한 위 조문과 비교하여 “위 조문에서는 水飲이 없기 때문에 복령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고, 이 조문에서는 水飲이 있어 복령을 중용한 것이며, 위 조문은 이미 분돈이 발생한 것이고, 이 조문은 분돈이 발생하려고 하는 것으로 病情이 중하고 경하고의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¹⁵⁾

[原文]

茯苓桂枝甘草大棗湯方

茯苓半斤, 甘草二兩, 大棗十五枚, 桂枝四兩

上四味, 以甘瀾水一斗, 先煮茯苓, 減二升, 內諸藥, 煮取三升, 去滓, 溫服一升, 日三服. 甘瀾水法^①:

14)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講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p.93.

15)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講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p.93.

13)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講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p.92.

取水二斗^②，置大盆內，以杓揚之，上有珠子五六千顆相逐，取用之也。

〔校勘〕

① 法: 趙開美本에는 ‘法’이 ‘但’으로 되어 있다.¹⁶⁾

② 二斗: 趙開美本에는 ‘三斗’로 되어 있다.¹⁷⁾

〔解釋〕

복령계지감초대조탕방

복령 반근, 감초 2냥, 대추 15알, 계지 4냥.

위의 4가지 약 중에서 먼저 甘瀾水 1말로 복령을 달여 2되가 줄어들면 나머지 약들을 넣어 3되가 될 때까지 달인 다음 찌꺼기를 버리고 하루에 3번, 한번에 1되씩 따뜻하게 하여 복용한다. 甘瀾水 만드는 법: 물 2말을 취하여 큰 대야에 부은 후에 자루로 휘저으면, 위에 거품 알갱이 5-6천개가 서로 일어나는데, 이것을 취하여 사용한다.

IV. 고찰

1. 奔豚의 原因

尤在涇은 奔豚의 원인을 傷寒과 雜病으로 나누어, 雜病에서는 驚과 恐이 원인이 되고, 傷寒에서는 發汗이 과도하였다든지 혹은 燒針 치료 후 寒邪가 鍼孔으로 침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2. 奔豚의 病機

尤在涇은 驚이 肝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을 인정하고, 또한 恐이 腎과 관련이 있다고 하여, 奔豚과 관련이 있는 臟腑를 肝腎으로 보고 있다. 또한 臟腑의 해부학적 위치상 腎臟과 肝臟이 모두 下焦에 居處하고 있으므로, 氣가 함께 잘 上逆하는 성질이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肝의 邪氣로 인하여 발생하는 奔豚의 특징은 寒熱往來인데, 그 病機에 대하여 尤在涇은 肝의 邪氣가 少陽經에 통해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腎의 邪氣로 인하여 발생하는 奔豚의 病機에 대하

여, 尤在涇은 發汗過多로 陽氣 즉 心氣가 많이 손상된 상태에서 외부 寒邪가 入裏하여 腎에까지 이르러 腎氣를 發動시켜 心에까지 이르게 하는데, 외부 寒邪가 침입하지 않고 發汗過多로 인하여 心氣가 부족한 경우에는 臍下에만 動悸가 있다고 하였다.

3. 奔豚의 治療

1) 肝의 邪氣에 의한 奔豚

尤在涇은 ‘肝欲散’하므로 생강 반하 생갈근으로 발산하고, ‘肝苦急’하므로 감초로 완화시키며, 당귀 천궁 작약으로 血을 다스리고, 황금 이근백피로 上逆하는 氣를 내린다고 하였는데, 이 중에서 반하를 降逆작용이 아닌 발산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는 점은 특이하다.

2) 腎의 邪氣에 의한 奔豚

尤在涇은 奔豚의 치료법에 대하여, 灸法을 사용하여 외부 鍼孔으로 들어오는 寒邪를 막고, 계지탕으로 외부 寒邪를 풀며, ‘加桂’하여 ‘내부에서 腎氣를 潤한다.’고 하여, 3가지 방면에서 치료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欲作奔豚’의 치료법에 대하여는, 계지와 복령으로 腎의 邪氣를 다스리는데, 培土制水の 오행원리에 의하여 감초와 대조로 脾의 氣를 補하게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奔豚의 치료에서 계지의 역할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계지를 가하여 心陽을 북돋워 逆氣를 내리고 위로 치솟는 것을 가라 앉힌다”¹⁸⁾는 학설과, “육계를 가하여 腎을 덥혀 納氣하게 하여 寒水가 下焦로 돌아 오도록 한다”¹⁹⁾는 학설이 있는데, 尤在涇은 腎의 邪氣를 伐한다고 하여, 계지를 腎氣가 上逆하는 것을 치료하는 주된 약재로 인식하고 있다.

V. 결론

16) 張仲景 編著. 仲景全書. 서울. 대성문화사. 1984. p.380.
17) 張仲景 編著. 仲景全書. 서울. 대성문화사. 1984. p.380.

18)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講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p.92.
19)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講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p.92.

『金匱要略心典·奔豚氣病脈證治第八』을 번역하고, 『金匱要略講義』의 내용과 비교 고찰하여 尤在涇 注釋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1. 奔豚의 원인은 雜病과 傷寒으로 나누었는데, 雜病에서는 驚恐을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傷寒에서는 發汗過多로 인한 心氣의 不足과 외부 寒邪의 침입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2. 奔豚의 病機에는 肝의 邪氣로 인한 것과 腎의 邪氣로 인한 것이 있다. 肝의 邪氣로 인한 것은 肝의 邪氣가 少陽經에 통하여 寒熱往來의 증상을 특징으로 한다. 腎의 邪氣로 인한 경우에는 發汗過多로 心氣가 부족해져 腎氣가 올라타 생기는 ‘欲作奔豚’과 心氣가 부족해진 상태에서 외부 寒邪가 入裏하여 腎氣를 발동시켜 心으로 치밀어 오르게 하는 奔豚이 있다.

3. 치료에 있어서는 肝의 邪氣로 생긴 奔豚에는 分 洞탕으로 치료하는데, 尤在涇은 分洞탕의 半夏를 발산작용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독특한 주장하고 있다. 腎의 邪氣로 인한 경우, 奔豚은 외부 寒邪를 푸는데에 치중하여 灸法 및 桂枝加桂湯으로 치료하고, ‘欲作奔豚’은 계지 복령으로 腎氣를 다스리면서, 培土 制水의 원리에 의하여 감초 대조로 脾氣를 補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계지를 腎邪를 치료하는 약재로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

2. 郭靄春, 王玉興 主編. 金匱要略方論校注語譯.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97.
3. 孫中堂 主編. 尤在涇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p.91-174.
4. 郭靄春 主編. 黃帝內經素問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p.64, 315.
5.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講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p.92, 93.
6. 陶弘景 集. 尚志鈞 輯校. 名醫別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308.
7. 張仲景 編著. 仲景全書. 서울. 대성문화사. 1984. p.379, 380.

참고문헌

<논문>

1. 이선란. 金匱要略心典에 대한 연구. 상지대학교 대학원. 2005. p.327.
2. 김진호. 註解傷寒論에 대한 연구. 상지대학교 대학원. 2007. p.290, 293.

<단행본>

1. 吳謙 等撰. 醫宗金鑑訂正仲景全書金匱要略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520.